청년기의 개인 특성, 성 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안권순* · 한건환**

본 연구는 청년기의 개인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아존중감, 내·외 통제력, 불안의 개인 특성 및 성 역할 정체감이 개인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첫째로, 개인특성과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둘째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성역할 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와 셋째로,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및 개인특성간에 상관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492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무선표집하여 성 역할 정체감 검사, 내외통제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상태특질 불안검사, 진로결정 수준검사 및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실시하여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및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특질불안과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었고, 남성성과 진로결정 유형간에 상관이 있었으며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이 성 역할 정체감, 특질불안과 상태불안 및 자아존중감간에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성 역할 정체감 유형이 양성성인 개인들이 다른 유형들의 개인들보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았고 고학년일수록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높았으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은 성 역할 정체감 형성과 관련되고 이는 개인의 진로결정수준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 한서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강사

I. 서 론

한 개인이 전 생애동안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또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보다는 계속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연속적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로를 언급할 때, 개인의 발달시기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적한다면 개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탐색을 시작하는 청년기라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직업에 대한 흥미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이다(Super, 1957). 그러나 현재 많은 대학생들은 청년기로 진입한 이전의 시기인 고등학교시기에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서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과 적응과 대학 졸업 후 진로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진로 상담은 Philiips(1992)의 지적처럼,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에 따라서 자기탐색과 자기발견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는 상담, 진로선택을 위한 준비가 더욱 강조되는 상담, 좀더 바람직한 의사결정능력을 길러주는 상담,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무엇보다 진로상담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진로상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며, 대학생들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진로 상담의 연구들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개인의 진로결정과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연구들은 더욱 절실해진다.

개인의 진로결정을 위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연구(Fuqua, Blum, & Hartman, 1988; Lucas, 1993; 김봉환, 1997)처럼, 국내에서도 진로문제와 관련된 내담자들에게 동일한 기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내담자 각각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상담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그가 처해 있는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상담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를 이해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담자에게 적합한 상담전략을 제공해야하는 진로상담 연구가들의 주장처럼(김충기, 1989; 김봉환・김계현, 1995; 이재창, 1995; 이혜성・홍혜경, 1998), 본 연구에서는 진로상담을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진로상담 연구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변인들로 성 역할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자아존중감, 내외통제력 및 불안 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 역할정체감과 진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아마도 개인의 성별이 무엇인가 일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별로 범주화하여 개인을 이해하려는 정보처리적 접근방식의 근본적 이유는 개인의 성별 자체보다는 일반적으로 성별과 관련된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는 성

역할을 이해하려는 의도 일 것이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성 역할은 개인들이 속한 문화에서 성장하면서 남녀가 각기 서로 다른 사회화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어져 간다(Bem, 1975; McDonald, 1991). 또한 개인이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형성한 개인의 성역할의 인식은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어 연구되어왔다(Orcutt & Walsh, 1979; Jenkins, 1989; 이재창 & 임용자, 1995).

특히, 성 역할정체감은 심리적인 성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한 개인을 특징짓는 성격특성과 행동 특성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남성적 또는 여성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Bem, 1975). 이러한 성역할은 남성적 그리고 여성적인 두 개념을 나타내는 도구성과 표현성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여 개인의 성 역할정체감을 이해한다(Kaplan & Sedeney, 1980).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좀더 확장한 이론은 이러한 두 가지 즉,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은 개인 내에서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는 양성성의 개념이 제기되었다(Bem, 1975). 이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은 한 개인의 남성성 특성과 여성성 특성이 균형있게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는 잠재적 특성을 나타낸다. 성 역할 정체감은 성역할 미분화, 양극화 단계, 초월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고 지적하면서(Herfner, 1975), 이 과정에서 양성성은 성 역할 정체감의 낮은 수준의 통합단계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단계로 발달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성역할 개념과 관련하여 개인의 진로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 역할정체감이라는 변인이 개인의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Gianakos, 1995).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진로유형의 차이와 원인을 살펴본 연구들은(김충기, 1989; 이재창 & 임용자, 1995; 유계식 & 이재창, 1997; Capurso & Blocher, 1985; Betz, Heesacker, &

Shuttleworth, 1990; McDonald, 1991)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성역할 정체감은 개인의 진로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모두 지닌 양성성적인 개인들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보다 바람직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이 심리적 특성과 그들의 접하는 사회적 환경을 속에서 사회화과정을 거치면서 형성한 성역할 정체감은 개인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2. 개인의 특성과 진로

대학생들의 바람직한 진로결정과정은 개인이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탐색을 바탕으로 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탐색과정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결정과정은 대학생 자신의 전공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된 진로결정과정에서 현재의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말하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미결정수준을 의미한다(Gati et al., 1996). 따라서 개인의 진로결정수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진로미결정수준과 진로결정수준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개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Larson, Heppner, Han & Dugan, 1988).

이전의 연구들은 개인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되어왔지만 최근에는 진로결정수준이라는 용어로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한다(Callanan & Greenhaus, 1992; Wanberg & Muchinsky, 1992).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 진로결정과 진로 미결정의 유형화 연구들은 진로문제와 관련된 내담자들에게 동일한 처치를 하기보다는 내담자의 각각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합한 상담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

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유형화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미결정 유형을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정보 및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직업적으로 아직 미결정된 유형과 개인의 성격적 특성 때문에 진로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인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히 미결정유형은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Osipow, 1987). 또한 Gordon(1998)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진로미결정의 연속선상에서 진로결정유형 3범주와 진로미결정유형 4범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과 미결정의 하위유형을 유형화한 연구인 허자영(1996)은 다음과 같은 네 유형 즉, 진로결정-확신있는, 진로결정-확신없는, 진로결정-정보필요, 진로결정-진로무관심, 진로미결정-불안정성으로 나누었다. 또한 진로 미결정의 하위유형에 대한 연구결과로 제시된 진로결정상태 모형을 구성하는 결정성, 편안성, 이유의 세 차원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이혜성과 홍혜경(1998)은 안정결정형, 다재다능형, 잠정결정형, 불안결정형, 혼돈미결정형, 수행불안형으로 하위유형을 설명하였다. 박미진 등(2001)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결정-확신, 진로결정-불확신, 진로결정-불안정, 진로미결정-불안정, 진로미결정-미불안, 진로결정-혼란, 진로미결정-역기능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김봉환(1997)에 의하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 진로결정수준은 높으나 진로준비행동은 낮은 집단, 진로결정수준은 낮으나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높은 집단,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대학생들의 학년은 진로결정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연구되어온 다양한 진로결정 유형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유형과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들간 그리고

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유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제경(1997)과 최영미(1998)의 연구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된바 있는 김봉환의 진로결정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조합에 의해 구분되는 네 가지 유형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진로결정수준이 높으며 진로준비행동도 매우 활발한 집단은 합리적인 사고를 거쳐서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A유형). 둘째, 진로결정수준은 높지만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부족한 집단으로 이들이 보이는 특성은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행동면에서는 미약한 편이다(B유형). 셋째, 진로결정수준은 낮고 진로준비행동은 매우 활발한 집단으로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활발히 추구하는 사람이다(C유형), 넷째, 진로결정수준도 낮고 진로준비행동도 낮은 집단으로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없고 진로준비행동도 나타내지 않는 집단이다(D유형).

특히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실제인 행위에 해당하며 이 개념은 진로결정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더욱이 진로탐색행동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진로준비행동은 또한 개인의 심리적 변인에 해당하는 내적 통제성(Greenhaus & Sklarew, 1981), 자아존중감(Ellis & Taylor, 1983), 동기(Blustein, 1988) 등과 관련이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 변인은 특히 개인의 진로에 대한 현재 수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이러한 유형화는 관련변인을 이해하는데 좀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이 된다.

진로연구에서 주로 많이 다루어지는 통제소재와 불안과 관련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생들의 통제소재와 진로발달을 연구한 Luzzo(1993)에 따르면 내적 통제를 하는 학생들이 외적 통제를 하는

학생들보다 진로발달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제소재와 관련된 진로연구들은 개인이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어떤 신념을 지니는가에 따라 행동은 달라진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Luzzo & Jenkins-Smith, 1998; Furnhan, Sadka & Brewin, 1992). 더욱이 개인통제소재와 진로결정수준(Taylor & Popma, 1990)과 매우 관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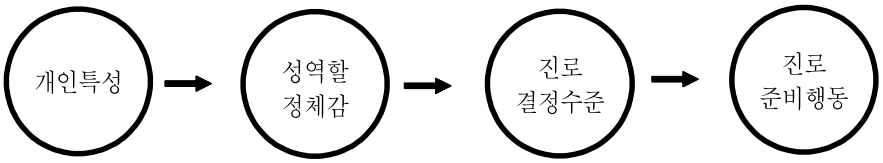
다음으로 불안과 진로 결정수준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수준이 높고(Gordon, 1998)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불안수준이 더 높다(Kimes & Troth, 1974). 이러한 개인의 불안 수준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봉환 & 김계현, 1995). 진로상담과정에서 개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진로결정유형과 성역할 정체감의 관계와 진로결정유형과 대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개인 변인으로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진 자아존중감, 불안, 및 통제소재 변인들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이러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을 외생변인으로 하여, 성역할 정체감과, 전공선택의 확신수준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인 진로결정수준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 행동을 설명하는 진로준비행동을 내생변인으로 한 이들간의 관계에 대한 모델를 검증하려고 한다. 즉 개인이 지닌 심리적 특성들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역할 정체감을 획득하고 그러한 성역할 정체감은 개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어 진로준비행

동을 하게 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개인 심리적 특성, 성 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대한 모델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대전의 C대학과 충남의 H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 53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학년과 성별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포함된 인원은 총 492명이었다. 이중 남학생이 181명(36.8%)이고 여학생은 311명(63.2%)이었고, 1학년은 167명(33.9 %) 2학년 141명(28.7%), 3학년 119명(24.2%), 4학년 65명(13.2%)이었다.

2. 측정도구

1) 성 역할정체감 척도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득란(1993)의 성역할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55개 문항으로 남성성 문항 20개, 여

성성 문항 20개, 중립문항 15개으로 구성되었다. 성역할유형의 분류 방법은 남성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들의 각각 총점에서 중앙치를 기준으로 남성성 점수가 높고 여성성 점수가 낮으면 남성성 성역할 정체감, 여성성 점수가 높고 남성성 점수가 낮으면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으면 양성성 성역할 정체감,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낮으면 미분화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성성 점수의 중앙치는 4.51이고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는 4.91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내적 일관성 계수는 .94이었다.

2) 내외통제성 척도

Rotter(1966)의 척도를 차재호(1973)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내외통제성 척도는 각 문항에서 내적 통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에 반응하면 1점을 외적통제 반응하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인 내적일관성계수는 .80이었다.

3) 자아존중감 척도

긍정적 자아존중감 5개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개 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79이었다.

4) 불안 검사

개인들의 불안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83)가 개발한 상태특성불안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태불안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7이었고 특성불안의 내적일관성 계수는 .84이었다.

5) 진로결정수준 척도

우리문화에 맞도록 번안한 고향자(1992)의 진로결정검사을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2문항은 진로와 전공선택의 확신수준을 알아보는 것이고 16개 문항들은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인 내적일관성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6)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와 관련된 개인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내적 일관성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성 역할 정체감 유형과 진로결정유형 및 진로결정유형과 학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범주변인들간의 거리를 좌표상에 제시해주는 대응일치분석(Correspondance analysis)을 실시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 성 역할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인 [그림 1]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LISREL 8 version을 사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 역할 정체감 유형과 진로결정유형간의 관계

연구대상자들의 성 역할 정체감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원에 따라 구분된 네 가지 진로결정유형간에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2차원의 공간에 두 변인(범주변인)들의 관계를 행과 열의 점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좌표상에 제시하는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대응분석의 결과 해석시 좌표상에 나타난 변인들간의 거리를 살펴보는데 이는 변인들간의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좌표상에서 가깝게 위치하는 변인들은 서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변인들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성 역할정체감 유형과 진로결정유형들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분포는 <표 1>에 대응일치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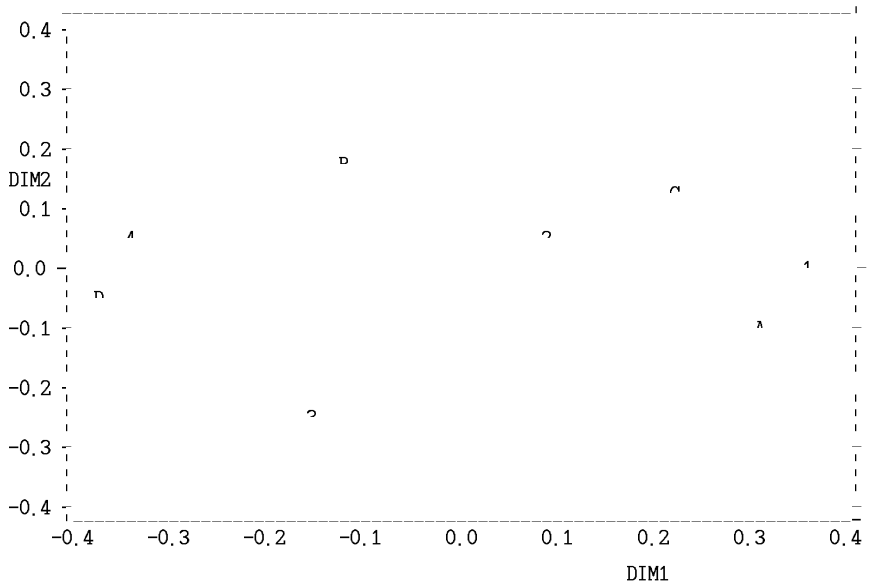
<표 1> 성 역할정체감 유형과 진로결정유형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분포

구 분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양성성 (1)	72명	24명	42명	29명
남성성 (2)	26명	18명	16명	19명
여성성 (3)	30명	12명	10명	37명
미분화 (4)	28명	34명	26명	69명

* A유형 :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
B유형 : 진로결정수준은 높고 진로준비행동은 낮은 집단,
C유형 : 진로결정수준은 낮고 진로준비행동수준은 높은 집단,
D유형 :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집단

<표 2> 성역할정체감유형과 진로결정유형간의 대응분석결과표

성역할정체감 유형			진로결정유형		
	Dim1	Dim2		Dim1	Dim2
양성성 1	0.503563	0.000051	A유형	0.346375	0.252127
남성성 2	0.016324	0.165706	B유형	0.031059	0.397341
여성성 3	0.048203	0.709717	C유형	0.108773	0.230605
미분화 4	0.431911	0.124526	D유형	0.513793	0.119928



[그림 2] 성 역할정체감과 진로결정유형에 따른 관계

대응분석 결과인 <표 2>를 바탕으로 제시된 [그림 2]를 해석하면 성 역할 정체감상태가 양성성으로 분류된 개인들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진로결정유형(A)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정체감 상태가 미분화인 개인들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진로결정유형(D)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진로결정유형이 C유형인 개인들은 진로결정유형이 A유형인 개인들과 비교하여 그 관련성은 낮지만 성 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인 것과 관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여성성의 성 역할을 보이는 개인들은 진로결정유형에서 2차원에 분류된 D유형과 약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적인 남성성의 성 역할을 보여주는 개인들은 행동적인 것이 더 많은 진로결정유형이 C형인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 역할 정체감유형과 진로 결정유형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어 진로상담에 이러한 유형들을 파악하여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진로결정유형과 대학생들의 학년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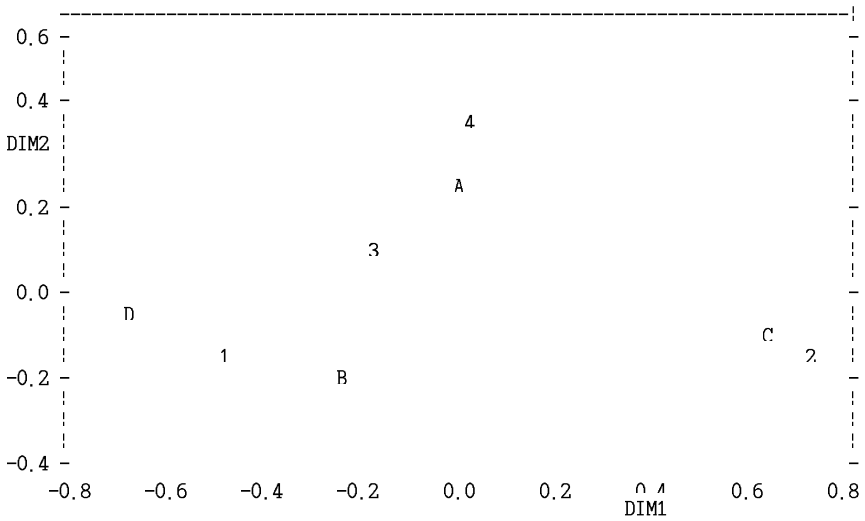
연구대상자들의 진로결정유형과 학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결정유형과 학년별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표 3>과 이에 대한 대응일치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진로결정유형과 학년별 연구대상자의 분포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A유형	44명	39명	42명	31명
B유형	44명	19명	16명	9명
C유형	20명	83명	27명	15명
D유형	59명	1명	33명	10명

<표 4> 진로결정유형과 학년별 유형에 따른 대응분석결과표

진로결정유형			학년별		
	Dim1	Dim2		Dim1	Dim2
A유형	0.000037	0.616258	1학년	0.338284	0.245957
B유형	0.045588	0.286255	2학년	0.628777	0.084263
C유형	0.525276	0.077580	3학년	0.032847	0.129931
D유형	0.429099	0.019907	4학년	0.000092	0.539849



[그림 3] 진로결정유형과 학년에 따른 관계

진로결정유형과 학년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 4>와 [그림 3]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4학년생들은 진로 결정유형(A)과 관련성이 있다. 진로결정유형(A)과 진로결정유형(B)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3학년생들은 진로결정을 하고 진로준비행동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학년생들은 진로결정유형(C)과 관련된 상태를 보여주었다. 즉 진로결정수준은 낮지만,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 등에 참여하는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학년

생들은 진로결정유형(D)으로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상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진로결정유형(D)과 비교해볼 때, 진로결정유형(B)과도 가까운 거리는 아마도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과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유형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로상담 시에 학년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개인 특성, 성 역할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

1)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단순 상관표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단순 상관표인 <표 5>에 의하면, 상태불안과 특성불안들은 다른 변인들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둘 변인들을 제외하고는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 성 역할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통제가 내적 통제일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고 또한 보다 바람직한 성 역할정체감 형성을 하였으며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점수에서도 모두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각 변인들의 단순 상관표

	상태 불안 (a)	특성 불안 (b)	내외 통제성 (c)	자아 존중감 (d)	성역할 정체감 (e)	진로결 정수준 (f)	진로준 비행동 (g)
(a)	1.000***						
(b)	0.622***	1.000					
(c)	-0.205***	-0.223***	1.000				
(d)	-0.525***	-0.506***	0.252***	1.000			
(e)	-0.271***	-0.298***	0.265***	0.463***	1.000		
(f)	-0.324***	-0.354***	0.255***	0.360***	0.205***	1.000	
(g)	-0.115**	-0.180**	0.291***	0.339***	0.364***	0.424***	1.000

* p<.05, ** p<.01, *** p<.001

[그림 1]에 제시된 모델에 따라 개인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들을 선행변인들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6>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인	β	R^2	R^2 Change	t
진로결정수준	.334	.174	.174	8.003***
성역할정체감	.232	.254	.080	5.362***
내외통제성	.134	.270	.015	3.340***
상태불안	.043	.273	.004	.842
특성불안	-.156	.280	.007	3.049*
자아존중감	.179	.298	.018	3.566***

* p<.05, ** p<.01, *** p<.001

진로결정수준, 성 역할 정체감, 내외통제성, 특성불안, 상태불안, 자아존중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변인들이 설명하는 전체 설명량은 29%였다. 앞에서 제시한 모델 [그림 1]에서처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접한 변인으로 가정한 개인의 진로결정수준은 다른 변인들보다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변인에 미치는 성 역할 정체감의 영향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정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내외통제성, 특성불안 및 자아존중감들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상태불안은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상담시 개인의 진로 준비행동을 좀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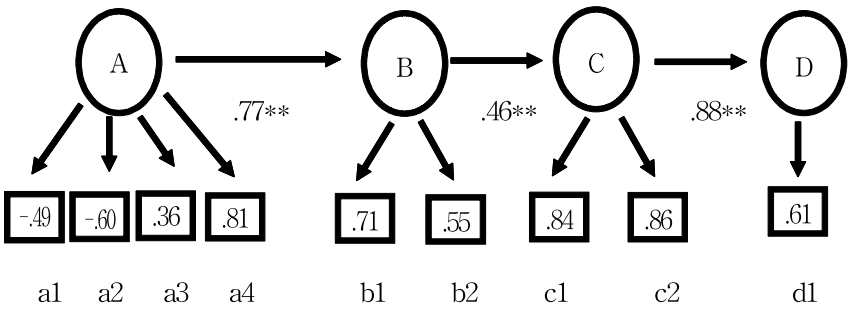
2) 공변량구조분석결과

[그림 1]에 제시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잠재변인을 위해 상태불안, 특성불안,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의 측정모델을 사용하였다. 성 역할 정체감의 내생변인을 위해서는 성 역할 정체감 질문지의 하위 영역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알아보는 두 가지 개념을 측정모델로, 진로결정수준을 위해서는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에 관한 요인(진로결정수준1)과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에 관한 요인(진로결정수준2)을 측정모델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준비행동을 묻는 문항들의 총점으로 측정모델로 사용하였다.

<표 7>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공변량구조분석결과

통계치	df	χ^2	GFI	AGFI	RMR	NFI	NNFI
모델	24	106.14	.95	.90	.069	.91	.90

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개인특성 ---> 성역할정체감	.77	.77	-
개인특성 ---> 진로결정수준	.35	-	.35
개인특성 ---> 진로준비행동	.62	-	.62
성역할정체감---> 진로결정수준	.46	.46	-
성역할정체감---> 진로준비행동	.80	-	.80
진로결정수준 --> 진로준비행동	.88	.88	-



* A : 개인특성 a1 : 상태불안, a2 : 특성불안, a3 : 내외통제, a4 : 자아존존감 B : 성 역할정체감, b1 : 남성성, b2 : 여성성, C : 진로결정수준 c1 : 진로결정수준1 c2 : 진로결정수준2 D : 진로준비행동 d1 : 진로준비행동질문지

[그림 4] 본 연구 모델의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의 경로계수

각 잠재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가 가정한 모델을 대상으로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해 주는 카이제곱 검정통계량은(χ2=106.14, df=24, p<.0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치는 표본의 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았다. 표본크기의 변화나 다변량 정규분의 위반에 영향을 덜 받는 기초부합도지수(GFI)는 .95였다. 또한 GFI를 좀더 확장 적합도 지수인 수정부합도지수(AGFI)는 .90, 표준부합도 지수(NFI)는 .91, 비표준부합도 지수(NNFI) .9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값들은 .90이상의 값들이면 적절한 부합지수를 나타낸다는 점(Joreskog, 1993)과 각 변인들이 잔차 크기의 실제적 유의성을 보여주는 원소평균자승잔차 값 역시 0.069로 나타나 본 모델은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잠재변인들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적절한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이 늦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적절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바람직한 성 역할 정체감 형성 즉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체감 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은 다시 개인이 진로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진로준비행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모델은 개인의 진로준비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진로결정수준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 역할 정체감 및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려고, 진로상담 연구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변인들인 성 역할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자아존중감, 내외통제력, 및 불안 변인들

을 대상으로 이들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개인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여 진로결정유형을 구분하였다. 또한, 개인의 현재 성 역할 정체감 상태를 묻는 질문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 역할 정체감을 유형을 구분하여 이 두 유형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두 유형간의 관계를 좀더 시각화하여 결과를 제시해주는 대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 역할정체감 유형이 양성성인 개인들은 좀더 바람직한 유형의 진로결정유형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높은 수준의 유형과 관계가 있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 역할 정체감이 미분화 상태인 개인들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진로결정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 역할 정체감의 다른 두 유형들은 양성성과 미분화 유형들보다 진로결정유형과의 관련성이 보다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통적 남성성의 성 역할 정체감으로 구분된 개인들은 진로결정유형과 그 관련성이 가장 적은 형태로 나타난 전통적 여성성의 개인들보다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진로결정유형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결과들은 개인의 성 역할인식은 개인의 진로와 관계가 있다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Gianakos, 1995; Fassinger, 1990; Helson & Picano, 1990)의 결과들과 일치한 것으로, 현재 개인의 진로선택은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적 전통에 의해 영향 받는 다는 점은 개인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성 역할정체감은 매우 중요함에 틀림이 없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다른 분석방법을 통해서 재확인하였다는데 본 결과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진로결정유형과 대학생들의 학년간에는 어떤 관계를 보

여주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분석을 실시한 결과, 4학년생들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높은 진로 결정유형과 관련성이 있었고 1학년생들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진로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학년의 중요성을 지적한 Daniels(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된 결과이다. 또한 3학년생들은 진로결정유형(B)와 진로결정유형(A)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의 대학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진로결정을 하면서 진로준비행동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2학년생들이 진로결정유형(C)과 관련되어 있는 이 결과는 현재 진로결정수준은 낮지만,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 등에 참여하는 수준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허자영(1996)과 고향자(1992)의 연구결과에서처럼 4학년들에 비해 2학년과 3학년들은 진로미결정을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능하다고 본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앞에서 제시한 모델 [그림 1]에 근거하여 개인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선행변인들로 진로결정수준, 성 역할 정체감, 상태불안, 특성불안,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수준, 성 역할정체감, 특성불안, 자아존중감 변인들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결정수준은 다른 변인들보다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의 선행변인인 성역할 정체감의 영향 역시 유의했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내외통제성, 특성불안 및 자아존중감 역시 유의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이 지닌 특성들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 역할 정체감을 획득하고 그러한 성 역할 정체감은 개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어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할 것이다라는 가정한 모델 [그림 1]을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 부합도 지수들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바람직한 특성들은 성 역할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이것은 다시 보다 나은 진로결정을 하도록 하게 하여 진로준비행동 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본 모델 검증은 그 동안 진로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인들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의 모델이 개인의 진로를 이해하는데 최고의 모델이라고는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본 연구에서 포함된 변인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모델 검증의 연구들은 더 많은 변인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증명함으로서, 개인의 진로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상담의 틀을 세워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모델은 개인의 진로준비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진로결정수준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 역할 정체감 및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모두 고려한 진로상담시 내담자에 대한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치를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반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 특성의 구성개념을 몇몇 변인만을 측정하여 정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한 목적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횡단연구인 본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이 2학기임을 고려해볼 때, 학기초부터 이루어지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지면 개인의 진로를 이해하는데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의 효과. 숙명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득란(1992).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련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봉환・김계현(1995).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7(1), 20-43.

김충기(1989).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원사.

박미진 등(2001).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25-146.

유계식・이재창(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 및 성 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9(1), 259-288.

이재창・임용자(1995). 성 역할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이 여대생의 전통적 진로유형 및 직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7(1), 1-19.

이제경(199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발달의 대학전공분야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성・홍혜경(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0(1), 143-166.

차재호 등(1973). 내외통제성 척도 작성.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2(19), 263-271.

최영미(1998).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의 네 가지 유형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실업 고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em,m S. L.(1975). Sex 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Betz, E. L.(1984). A study on career patterns of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249-264.

Blustein, D. L.(1989). The role of career exploration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0, 111-117.

Callanan, G. A., & Greenhaus, J. H.(1992).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An examination of multiple sub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12-231.

Capurso, R. J., & Blocher, D. H.(1985). The effects of sex role consistent and inconsistent information on the social perception of complex, noncomplex, androgynous and sex-typed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6, 79-91.

Daniels, M. H.(1982). The heuristic value of Harren's carrer decision-making model for practitioner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3.

Ellis, R. A., & Taylor, M. S.(1983). Role of self-esteem within the job search proc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 632-640.

Fassinger, R. E.(1985). A causal model of college women's career choi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123-153.

Fassinger, R. E.(1990). Causal models of career choice in two samle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225-248.

Fuqua, D.R., Blum, C.R., & Hartman, B.W.(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5-373.

Gati, I., Krausz, M., & Osipow, S. H.(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Gianakos, I.(1995). The relation of sex role identity to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ci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6, 131-143.

Gordon, V.N.(1998). Career Decidedness type: A literature review.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4), 386-403.

Greenhaus, J. H., & Sklarew, N. D.(1981). Som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1-12.

Hefner, R., Rebecca, M., & Oleshansky, B.(1975). Development of sex-role transcendence. *Human Development,* 18, 143-158.

Helson, R., & Picano, J.(1990). Is the traditional role bad for women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311-320.

Jenkins, S. R.(1989). Longitudinal prediction of women's careers: psychological behavior, and social-structual influ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4, 204-235.

Joreskog, K.G.(1993).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ratin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Mooresvill, III*: Scientic Software.

Kaplan, A.C., & Sedney, M.A.(1980). *The Psychology and sex role: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Kimes, H. G., & Troth, W. A.(1974). Relationships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4), 277-280.

Larson, L.M., Heppner, P.P., Ham, T., & Dugan, K.(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Lucas, M.S., & Epperson, D. E.(1990). Types of vocational undecidedness: A replication and refin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383-338.

Luzzo, D. A. & Jenkins-Smith, A.(1998).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assement of attributions for career decision-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 224-245.

McDonald, M. L.(1991). *Predicting the career cho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ing among college women.* The Ohio State University.

Orcutt, M.A., & Walsh, M.B.(1979). Traditionality and congruence of career aspirations for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1.

Osipow, S. H.(1987). *Manual for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Phillips, S. D.(1992). *Career Counseling: Choice and Implementation.* In S. D. Brown & R. W. Lent,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pp.513-547).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o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Spielberger, C. D., Gorsuch, R.L., Lushene, R. E., Vagg, P. R., & Jacobs, G.A.(1983). *State-Trait Anxiety manual.*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s.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per & Row.

Taylor, K. M., & Popma, J.(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17-31.

Wanberg, C. R., & Muchinsky, P. M.(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 of youth personal traits, sex-role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hn, Kwon-Soon* · Han, Gun-Hwa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ind the relationship of youth personal traits, sex-role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order to find the relationship, the problem of this study were specified as follows:

1) In what relate to personal traits according to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 To what relate to sex-role identity according to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 What personal traits and sex-role identity relate to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stratified random sample of this study consisted of 492 students among freshman, sophomores, junior and senior in Chung Nam National University(male, 181, female 311, freshman 167, sophomores 141, junior 119 and senior 65).

The instruments of this study were Kim, Dug-Ran's reaction

* Professor, Hanseo University
** Lecturer, Chungnam University

scale to sex-role identity, Cha, Jae-Ho's intro-extra control scale, Rosenberg's self-esteem scale, Spielberger's state-trait anxiety scale, Go, Hyang-Ja's career decision level scale and Kim, Bong-Hwan'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 Data were treated using correspondenc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highest correlation among personal trait(trait anxiety, self-esteem) and career decision level.
2) The partial correlation between sex-role identity(masculinity) and career decision type.
3) The effective factor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sex-role identity, trait anxiety, state anxiety and self-esteem.

This study suggests that relations of youth personal traits, sex-role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